

상대적 사랑의 차원 (사랑의 대상에 따른 사랑의 차원)

본 문 요한복음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27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주와 관리, 전도’를 표어로 정하시고 “나와 함께 전적으로 생명을 관리하고 전도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개인과 교회는 생명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해 문제도 많이 생기고 생명도 유실되었습니다. 반면 ‘관리와 전도’를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행한 개인과 교회는 관리도 하고 전도도 하여 생명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자들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좌절되어 생명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 자들은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며,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사랑의 차원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상대적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진정 깨닫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악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기 싫어합니다. 또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선하게 삶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 없이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를 좋아합니다. / 교회를 다녀 보고 신앙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자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믿다가 만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먹고 입고 누리며 자기 희망과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데 전념을 다하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관념적인 꿈결 같은 세계로 생각합니다. 사명을 받아 천국과 지옥에 가서 보고 온 자들과, 꿈으로 자기 혼과 육이 초자연적 상태에서 영계를 보고 온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니 믿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관념적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서 비디오를 찍어서 가지고 오지 못하니,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본 것을 그러서 보여 줍니다.

왜 현대인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을까요?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접하며 그것에 마음도 몸도 빠져 사니,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인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 세계를 생각할 경황이 없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살면,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현실 세계에서 몸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니까 영의 세계의 소경이 되어 영원한 세계에 대해 관심 없이 살고, 자기가 사는 세상과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

조주에 대해 관심 없이 삽니다. 한마디로 그 실체를 몰라서 그같이 살아 갑니다. 알면 모두 중단하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 것입니다. <끝>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는 자들, 곧 육신도 영혼도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지만, 현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많기에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 왜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데려오기 어려운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들겠습니다.) <영상2>

첫째, 시대적으로 볼 때 의식주가 풍부하고 시대가 발달되어 세상 문화가 화려하고 찬란할수록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빠져 삽니다. 고로 몸으로 느끼고 접하는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중시하여 살기 때문에 더 영의 세계를 멀리하고 하나님도 주님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둘째,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려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사느라 시간이 없으니 더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못 가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같이 살게 놔두느냐고 하며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무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로 성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땅의 구원자를 보내 주시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해 주신 후에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에 맡겨 두시고 행한 대로 대해 주십니다.

자기가 아프고 다쳐야 병원을 찾듯이, 자기가 인생 문제에 부딪혀야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 두사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 자기 행위로 인하여 환난과 고

통을 당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책임을 하면 그 행위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로 예수님 때도 신앙의 부유층과 삶이 부유층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믿고 따랐습니다. 병이 낫고자 믿었고, 인생의 힘든 고통을 벗어나고자 믿었고, 세상에서 못살고 고생하며 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육신이 죽은 후에 저 세상에 가서 잘살고자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되고, 육신이 죽은 후에 영도 잘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 구세주는 육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신앙은 미래의 문제만 해결하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도 됩니다.

<영상2 끝>

천국도 지옥도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의 세계입니다. 이 지상에 육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세상도 실제로 존재하듯이, 영도 실제로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과 각종 영들이 갈 각종 영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존하는 현실 세계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선생도 확인되지 않은 세계라면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관념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냥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내 영이 가서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 하니,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낙원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나사렛 예수님의 영도 보았고, 그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수백 군데의 각종 영계도 가 보았습니다. 고로 영의 세계가 실존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 쪽 영계에 있는 영들은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 수렁의 흙탕물을 먹으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혹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너무 뜨거워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혹은 사탄 마귀로부터 쇠몽둥이로 마구 얻어맞기도 하고, 묶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질 끌려가기도 하면서 각종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혹은 사탄 마귀가 그 영의 몸에게 칼로 회를 뜨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진정 악의 세계이며 고통의 세계였습니다. 하룻저녁에 20군데 이상의 지옥을 볼 때였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해 너무도 허무하고, 불안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악하고, 질서가 없는 세계입니다. 짐승에 속한 공허한 세계입니다.

선생은 이같이 천국과 지옥과 각종 영의 세계를 영으로 보고 확실히 알았고, 혹은 성자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또한 성자 주님께서 섭리사에 2000편 이상의 계시를 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이 영의 세계를 접하고 관념 세계가 아닌 실존하는 현실 세계임을 알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영상3 끝>

전도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힘들더라도 각자 자기가 깊이 기도하여 영의 세계도 가 보고 직접 확인하고 전해 주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확실합니다. 또한 전도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힘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 관념적인 개념을 없애 주고, 실존적인 신앙을 마음에도 생활에도 심어 줘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구세주 메시아를 믿고 삶으로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의와 공력을 쌓아야 그 영이 그 의와 공력을 받아서 천국에서도 얻고 살게 됩니다.

공력은 여러 가지이지만, 생명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일이 가장 큰 공력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은 인간의 육신이 땅에서 살 때 삼위일체를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그 영도 그같이 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를 받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시대 구약 율법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믿으면서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앙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시대 최고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시대 성약시대는 구시대 신약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앙을 하는 때로서, 시대의 차원에 따라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신부의 신앙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대 어느 때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신앙으로서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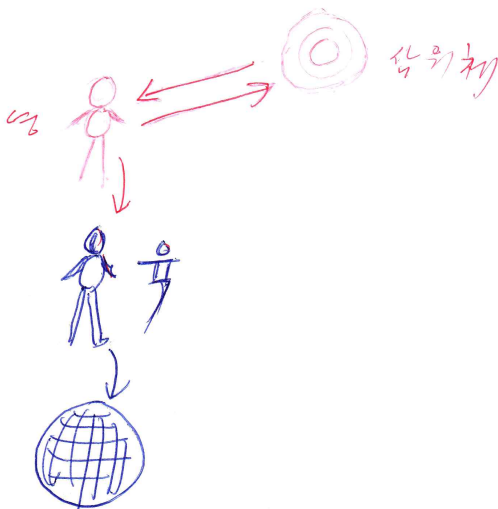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초 말씀을 하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인생의 육적 문제도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육적 문제도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절대 믿고, 성자가 육신으로 쓰는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낸 자와 일체 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오직 참된 사랑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 일체 되어 살듯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육도 영도 곤고함을 벗어나고 영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사랑의 향락을 누리고, 물질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 허무로 끝납니다. 이 같은 삶은 육도 영도 사망에 처한 삶이기에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곤

고한 삶입니다. 고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영상4 끝>

인생 100년, 90년, 80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 봤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시간이 순간 지나갔음을 알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 인생이 늙어 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본 형태가 변했다는 것은 벌써 늙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안 늙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늙은 것이 확 표가 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 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자기 영을 천국의 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켜 영원히 살게 해야 됩니다. 육신만 하루, 한 달, 1년 더 살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으로서 인생은 정해진 목적지입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영을 구원해 놓고 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보람입니다. 이는 영을 구원해 놓지 않고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10년을 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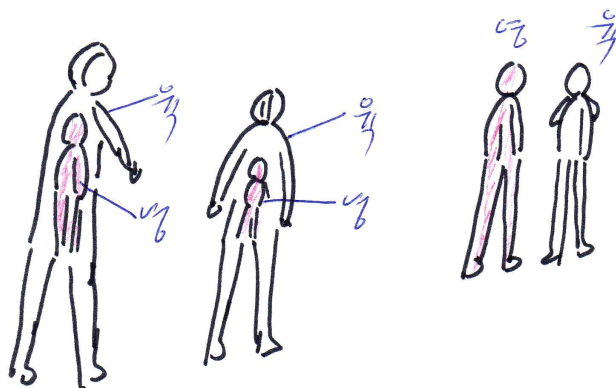
<성자의 말씀>

-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며 전해야 할 말씀 -

(★ 오늘 말씀의 주제인 ‘상대적 사랑의 차원’에 대해서 성자 주님께 서 깊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쪽~ 화면을 통해 ‘상대적 사랑의 차원’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과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흐름에 박자를 맞추어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 중요 영상 : 특별히 신경 쓸 것!!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 육신을 통해 하늘에 속한 영을 만들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육신에 세상 영 창조



육신을 통해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의 대상체’ 요, 육신을 통해 영을 만들어 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의 세계’ 다. /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천국의 영은 육신을 통해서 난 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시작된 영체들이다. 고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동질 요소로 태어난 영체로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의 사랑의 대상체’ 다.

이것이 영은 영을 통해 영을 창조함
천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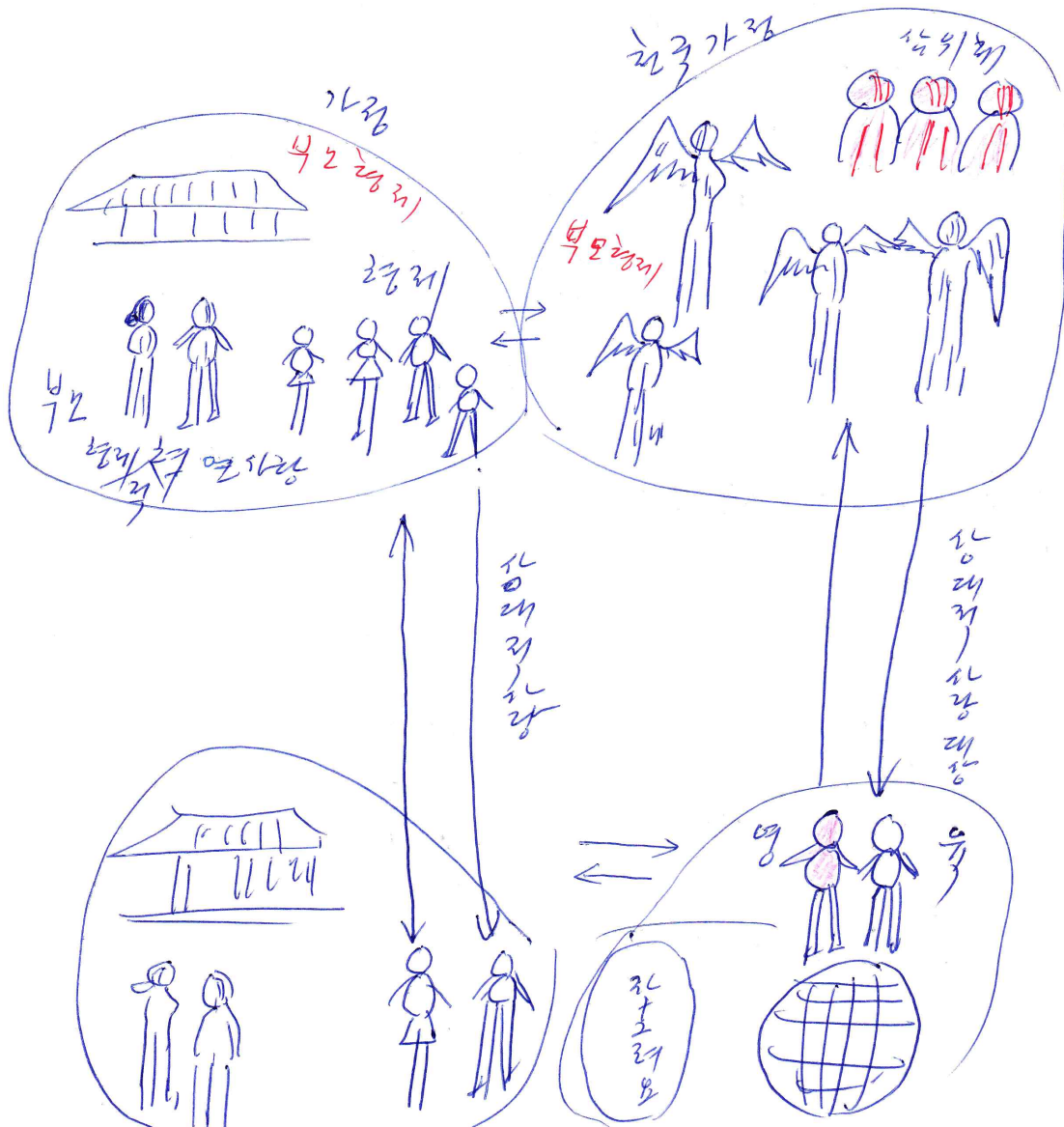
이를 비유를 들어 말할 테니 잘 듣자.

너희 가정의 형제자매들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 태어났기에 한 혈통이다. 한 혈통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지고 장자와 차자가 정해진다. 고로 한 혈통은 형제급 사랑을 하며 마음과 정신의 사랑밖에 하지 못한다. 상대적 사랑, 육체적 사랑은 못 한다. 만일 한 혈통과 상대적 사랑, 육체적 사랑을 한다 해도 이는 사랑의 느낌과 기쁨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위행위적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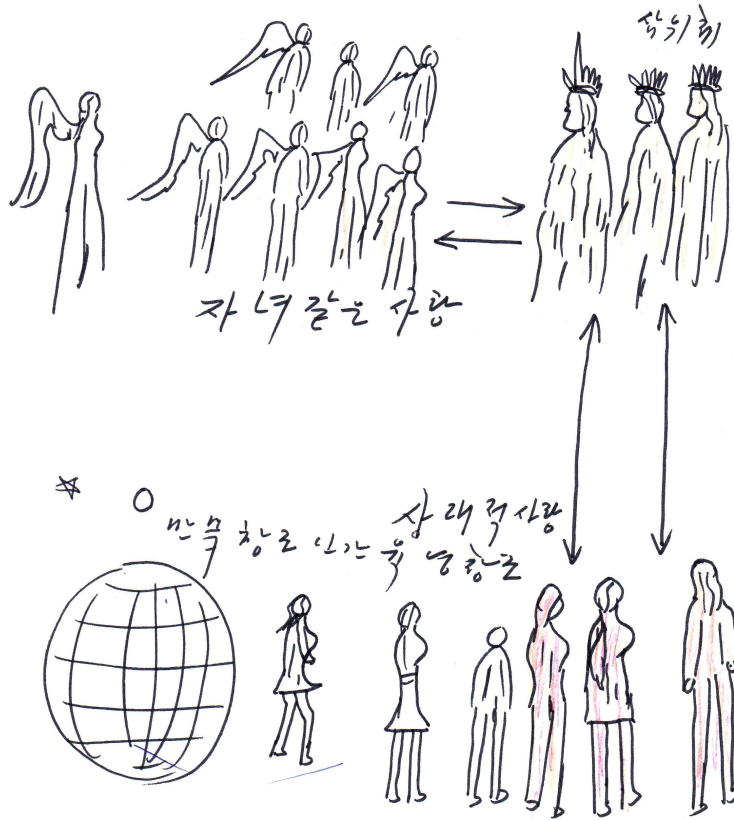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 혈통의 결합이 아니다. 다른 혈통에서 상대적 사랑의 대상을 만나 사랑하고 결합하여 너희를 낳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한다. / 너희 가정의 한 형제자매들도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만나서 그를 상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고 결합해야,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100% 상응하여 만족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천국의 천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천모 성령님으로 인해 존재하며 한 형제자매같이 산다. 고로 천사끼리 형제적 정신적 사랑을 하며 살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모처럼 모시고 산다. 천사는 한 가정과 같은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영체이기에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혈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로 남녀가 서로 결합하는 사랑은 정신으로도 생각으로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천국에서 한 형제같이 산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천사들의 부모가 되어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 혈통끼리의 형제 차원의 사랑과 타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와의 상대적 애인 차원의 사랑이 다르듯, 천국 자체의 영들끼리 사랑하는 차원과 다른 혈통과 같은 지구 세상의 육과 영을 상대로 사랑하는 차원이 다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사랑의 본체다. 고로 자녀에게서 오는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만족하듯 삼위의 사랑을 받고 만족한다.



사랑의 본체인 삼위일체는 자녀 같은 천사와의 자녀급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적 애인급 사랑을 하려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했다. 상대적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니 다른 혈통을 창조한 것이다. 이 다른 혈통이 바로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너희 영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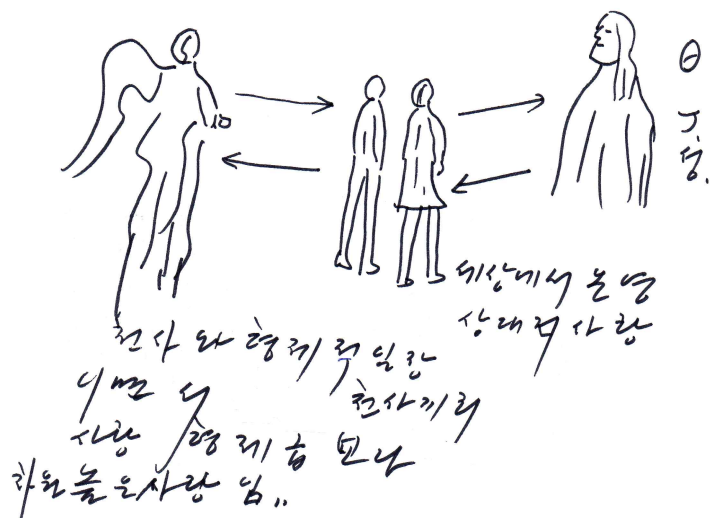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 창조된 영은 마치 타인을 통해 태어난 다른 혈통과 같다. 같은 여자라도 자기 혈통인 부모를 통해 낳은 자와 다른 부모를 통해 낳은 자를 대할 때, 본질상 사랑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겠느냐. 그 사람을 자기 짝으로 삼고 육체적인 사랑을 한다면, 자기 형제자매와 자기 부모와 하는 정신적 형제급 사랑과 비교가 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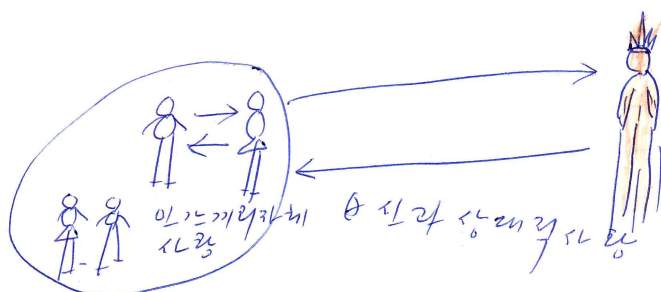
고로 하나님도 세상의 육신을 통해서 영을 창조하셨다. 육신을 통해 태어난 영은 '삼위의 상대적 존재' 다. 고로 하나님은 그 육신들에게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세상의 육 있는 자를 자기 육으로 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을 넣어 주며 길렀다.

육신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니, 영도 육신의 행위를 받아 그같이 변화되어 제2의 육과 같이 하늘에 속한 영으로 성장된다. / 그러다가 때가 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성자 본체가 재림하면, 휴거의 영으로 온전히 준비된 영들만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하늘의 상대적 애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는 상대적 애인급 사랑을 하고, 천사들과는 형제급 사랑을 한다. 인간은 천사들과 형제 입장이면서, 천사들끼리 하는 형제급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한다. 마치 자기 형제가 결혼하여 형수나 새 식구를 데리고 오면 사랑하듯,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인간의 영을 천국에 데리고 오면 천사는 그를 그 입장에서 사랑한다. 휴거된 영과 천사와의 사랑의 차원은 천사끼리의 사랑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높다. 거기까지 휴거된 인간의 영과 천사와의 사랑이 얹힌다. 고로 천사들도 너희를 좋아하며 시중들고, 경호해 주고, 사탄에게 사랑의 희망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지켜 준다.



세상에서 하는 인간끼리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 사랑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에 비해 차원이 낮다. 마치 같은 혈통끼리 사랑하는 형제급 사랑의 차원과 같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랑의 차원이다. 세상 인간끼리 사랑하니, 실상은 같은 혈통과 하는 사랑이다.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은 배와 씨만 다르지, 실상은 같은 동질 요소로 태어난 같은 육체들이 아니냐.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의 ‘상대적 짝’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영체로 존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시다. 나 성자다. / 고로 너희 육도, 육을 통해 태어난 너희 영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성삼위를 진정 사랑해 보아라. 이는 마치 자기 집의 형제자매를 형제 차원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유전자가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100배, 1000배 달리 느껴진다. ‘상대적 사랑’이라 그러하다. <영상6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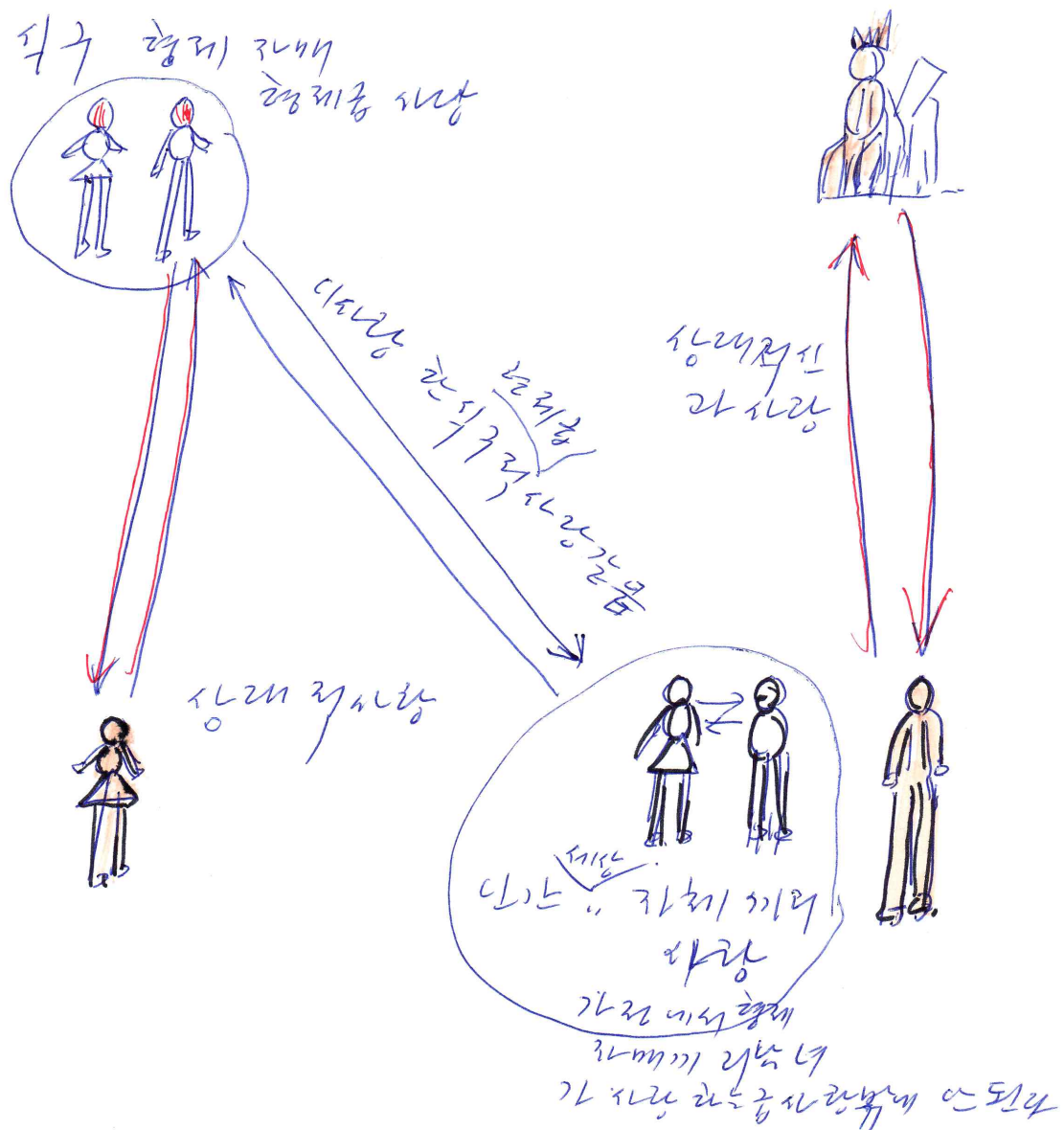
에서 영체로 존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나 성자다.

성삼위를 진정 사랑해 보아라. 이는 마치 자기 집의 형제자매를 형제 차

원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유전자가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사랑하

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100배, 1000배 달리 느껴진다. ‘상대적 사

랑' 이라 그러하다. <영상6 끝>



하나님을 ‘생각’ 으로만 사랑해도 그 사랑이 느껴진다.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하듯이, ‘생각’ 으로 하나님과 나 성자와 사랑의 영적 교통을 하면 천 배, 만 배 하나님과 나 성자의 사랑을 느낀다.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안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하거나 같이 일해도 사랑을 느끼듯이, 너희 영도 육도 하나님과 나 성자와 그러하다. 영은 육에 비해 수십억만 배 강렬하게 느낀다. 기도할 때 느낀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느낀다. 하나님과 나 성자를 진정 사랑할 때 느낀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육신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서 그 사랑을 접해도 그와 같은데, 너희 영이 삼위일체를 접하고 사랑하면 육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렬하게 느낀다. 하늘의 사랑은 너무 강렬하여 영만이 그 사랑을 다 감당한다. ‘육’ 으로 사랑할 때는 마치 남녀가 서로 만진 것과 같고, ‘영’ 으로 사랑할 때는 마치 남녀가 육신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한 것과 같다.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사랑을 느낀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세상의 육신을 통해 영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터전인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다음에 인간의 육을 창조했고, 육을 통해 영을 창조했다. 너희 육과 영이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사는 배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또한 너희 육신이 숨 쉬고 먹고 입고 자면서 살도록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 터전 위에서 성삼위를 사랑하며 육을 통해 영을 만들라 함이다.

영은 육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육을 통해서 성삼위를 사랑하면서 신부의 형체로 완성된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성자 본체가 재림하면, 신부의 형체로 완성된 영을 휴거시켜 사랑의 세계인 천국에 데리고 와서 약속대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한다. 천국에서 1000년 혼인 잔치가 끝나면, 그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큰 비밀은 우주와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나 성자가 너희를 구하려 보낸 나의 육체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다. 나 성자 본체의 재림 직전인

마지막 기회에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고 밝힌다. 너희는 나의 신부들
이라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다. 이 시대로 온 너희들에게 나의 상대적
사랑을 허락했으니, 너희는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영원한 사랑의 대
상으로 삼고 사랑하여라. 그래야 마지막 기회에 육도 영도 나의 신부로
온전히 변화되어 그 날에 너희 영이 휴거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형제자매
끼리 사랑하는 것과 같은 육적 사랑의 주관권을 벗어나 하늘의 영원한 사
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땅에서 육으로 이루고,
천국에서 영으로 영원히 이루게 된다.

마치 하루살이가 살듯 너희는 불쌍하게 이 시대에 세상 육을 위한 사
랑에만 빠져 살지 말아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이상을 위해 살라고 시
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 성자가 이 시대 나의 육을 통해서 전한 말
씀들을 증거하여라.

너희의 상대적 사랑의 대상인 사랑의 성자다. 샬롬!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시대의 증인이 되고 구원자들이 되
어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1000년 역사 삼위일체의
뜻이 매일 계절처럼 쉬지 않고 펼쳐지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
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